

## 김예란 시민편집인 소개



김 시민편집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뒤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칼리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림대 교수를 거쳐 현재 광운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 교수는 2016년 3월부터 <한겨레> 지면에 게재하는 칼럼 등을 통해 시민과 독자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김 교수는 “독자와 신문사 간 소통의 폭과 깊이를 이전의 정치 지면 중심에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경제, 국제 지면 등으로 확장,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겨레 온라인 사이트에 실리는 댓글과 트위터 등에 답기는 독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면 시민편집인실 전자우편([publiceditor@hani.co.kr](mailto:publiceditor@hani.co.kr))이나 전화(02-710-0698)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편집인의 눈] 알파고가 아닌 우리 인간의 여전한 진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mailto:kimyh@hani.co.kr)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mailto:kimyh@hani.co.kr)

3월 내내 우리는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고 접하느라 숨 가빴다. 우선 야당 국회의원 38 명이 참여하여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간, 192시간 26분 동안 테러방지법안을 반대·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는 세계 최장기록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정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이다. 이제 우리가 '투명인간'이 되지 않는 한, '빅브러더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시민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모조리 볼 수 있게 되었다(<한겨레 21> 1103호). 심지어 정부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추진할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현 정권의 야만적인 강경주의가 유신체제의 긴급조치에 빗대어지며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유전자'가 거론되는 현상이 당연하게 느껴진다(<한겨레> 3월 15일치 30면).

두 번째 장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서울에서 열렸다. 알파고가 상징하는 인공지능의 우아함과 강력함에 대한 매혹이, 이세돌이 대표하는 분투하는 인간에 대한 감동과 절망에 겹쳐졌다. 정부는 곧바로 구글을 능가할 만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선언과 함께 '지능정보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보통의 사람들은 알파고를 계기로 해서 또 하나의 통제탑 건설로 연합해 들어가는 정부와 대기업의 재빠른 반응 및 스마트 신발과 인공지능을 분간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무지에 새삼 놀라며 키득댔다. 그 와중에, '아주 보통의 위기'의 신기록이 또 한 차례 닥쳤다(<한겨레 21> 1103호). 다름 아니라 이삼십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사상 처음 감소했으며 청년실업률이 12.5%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현재 방식으로 통계조사를 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 인공지능과 권력 불평등

테러방지법, 알파고, 청년실업- 이 세 가지 사건은 이 땅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진실을 알려주는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AI), 로봇과 사람의 협업시대' 보고서는,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덕분에 2020년께가 되면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이 맡고

인간은 '감성과 소통능력'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일에 전념하게 되리라 전망한다. 여전히 유효할 인간의 직업으로 예술가와 전문가 등이 선정된 반면 인간을 떠날 직업에는 콘크리트공, 택배원, 행정사무원 등 단순 육체·사무 노동자가 포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후자의 소멸 우선순위 직군은 최저임금 몇백 원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며, 다수의 학생 및 비정규직 청년들이 알바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는 고달픈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 기술평론가 마리아 패럴이 단언하듯이, 빅데이터든 사물인터넷이든 인공지능이든, 이 모든 사안의 본질은 '권력'이다. 뉴테크놀로지는 대자본과 친하다. 또한 미디어 학자 레프 마노비치의 말대로 소위 멋진 신세계는 정보 소유자, 정보 관리자, 정보 피착취의 계급들로 위계화된 비뚤어진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2016 년 3 월에 등재된 신기록들은 이미 청년의 현실로 체화되고 있다. 개강을 하면 학생들이 각자 좋아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곤 한다. 여느 때 같으면 학생들은 티브이(TV) 시청이나 산책하기, 심지어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방에 틀어박혀 음악 듣기일지라도, 타인과 더불어 지내고 사회와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경험들로 자신을 소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신은 홀로 살고 있으며, '앱'을 설치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먹방을 보며 음식을 해 먹고, 유튜브를 통해 명상의 소리를 듣는 식으로 '상처'를 달래고 '힐링'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먹먹해졌다.

청년의 삶, 과거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역사의 문제로

어쩌면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미 사이버 내지 인공지능의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위선적인 정치가나 탐욕스러운 사회질서 대신 스마트 기계들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신뢰한다. 새로운 밀레니엄 즈음에 십대가 된 와이(Y)세대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빈곤한 후속 세대가 되리라는 암울한 세계 전망이 나와 있다. 영미권에서는 해리 포터를 읽으며 마술 같은 세상을 꿈꾸었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한 소녀가 억압적인 독재정권과 악독한 자본에 저항하는 내용의 영화 <헝거게임>에 열광한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사토리세대는 물론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하나로 알려진 스웨덴에서조차 부모가 앞서 길을 닦아주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생활을 유지하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그런 모양새를 갖춘 동계 스포츠 종목 명칭을 따라 '컬링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지구적 양상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알팍한 자위라도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유로운 삶의 미학과 탈주를 주장하는 사유를 제안하며, '혼자임'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보도록 학생들을 북돋고자 애썼다. 그러나 지치고 외로운 청년들은 스스로 대단한 위인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그저 '사람대접'을 받고 싶을 따름이라고,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가 내뱉은 말을 똑같이 중얼거릴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감시효과든 노동 생산성이든,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스마트-인공지능이 만능이라고 찬미되는 반면, 막상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역설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각 현상을 칸막이 친 개별 기사들로 분리해서 처리하며 하나의 일시적인 소재를 다루자마자 방금 터진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느라 분주하다. 그 결과 사회적 현실은 파편화하고 정치적 복잡성은 망각되는 분열적인 건망증이 고질화된다.

정치적 유전자로 기억되는 슬픈 과거부터 인공지능으로 상상되는 밝은 미래까지, 이 모순된 줄기들은 모두 우리의 현재를 이루는 사회적 실재다. 실제 대중의 경험세계에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상호 연관된 현실로 이해되고 있다. 어떤 독자는 알파고의 열풍 때문에 총선의 중요성이 축소되는 경향을 지적했으며, <한겨레> 페이스북 사이트에서는 청년의 입장에서 알파고를 패러디해서 한국 사회의 정계, 경제계, 학계를 풍자한 대학원생의 단편소설이 잔잔한 공감을 얻었다. 나는 독자들의 순진한 느낌이 각개 현상을 분리해서 피상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 내용보다 때로는 더 정확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언론은 과거로부터 빚어진 오래된 사안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캐묻는다. 젊은 언론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현상에 호기심을 발휘하고 혁신을 꿈꾼다. 반면 급진성(래디컬)은 말뜻 그대로 뿌리를 파내어 움켜쥐고 내달리는 힘이다. 그래서 과거의 빛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걸머지고 그것들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구속하는지 고찰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앞날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급진 언론이다. 따라서 <한겨레>가 진정한 의미의 급진적인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안을 파편적이고 표면적으로 다루는 편의적 조합의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 역사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사건들 사이의 구조적 연결성과 의미의 복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통찰하는 거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댓글중계] 부정입학 의혹 나경원에 "감정 호소 말고 적극 해명해야"

활동 기록 2016/03/31 10:48:35

[댓글 중계] 부정입학 의혹 나경원에 "감정 호소 말고 적극 해명해야"

지난 17 일 <뉴스타파>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19 일, 당시 면접관이었던 이재원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22 일 지면에는 이병우 학과장(당시 면접 심사위원장)이 최근까지 나 의원 딸의 성적을 관리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이병우씨, 나경원 딸 위해 성적 변경·관리까지 했나"(22 일치 9 면) 기사 등에 300 여명의 누리꾼이 의견을 남겼다.

누리꾼 '전경\*\*\*'은 "나경원은 '장애인 엄마'라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이 아닌 딸을 위해 정치하는 국회의원"(ep\*\*\*), "계속 정치하려는 이유가 뭐죠? 그냥 열혈 엄마로만 사시길"(iz\*\*\*) 등 엉뚱한 곳에 권력을 사용한 정치인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 'li\*\*\*'는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잃지 않고 도전했던 당시 지원자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모두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한때 나 의원을 존경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유명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이병우 학과장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aa\*\*\*'는 "정치 권력에 물든 당신에게 순수한 창작물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고, 'so\*\*\*'은 "이 일로 면접에서 떨어져야 했던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며 이 학과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독자의견] 공정한 선거 되도록 언론이 앞장서야  
독자 의견 2016/03/31 10:49.59

[독자 의견] 공정한 선거 되도록 언론이 앞장서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여야 공천 잡음 등 한 달간 정치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시민편집인실에 접수된 의견도 정치 관련 내용이 많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독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부산 방문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일으킨 비례대표 파동 중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한겨레>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가 더민주의 비례공천 논란을 더 크게 보도했다"고 말했다. 독자는 "4·13 총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지 않도록 <한겨레>가 올바른 여론 지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리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37550.html>

[독자의견] 김무성 도장, 옥새 아닌 직인으로 써야  
독자 의견 2016/03/31 10:51.56

[독자 의견] 김무성 도장, 옥새 아닌 직인으로 써야

총선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24 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에 의결 거부를 선언했다. <한겨레>는 "'옥새 투쟁'...김무성, 박대통령에 반기"(25 일치 1 면)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50 대 남성 독자가 전화해 "정당 대표의 직인을 옥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따옴표로 처리해 비유적인 표현임을 부각시키고, 옥새의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쓴 것 같다"고 답하자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 어른들은 짐작하지만 어린이들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겨레>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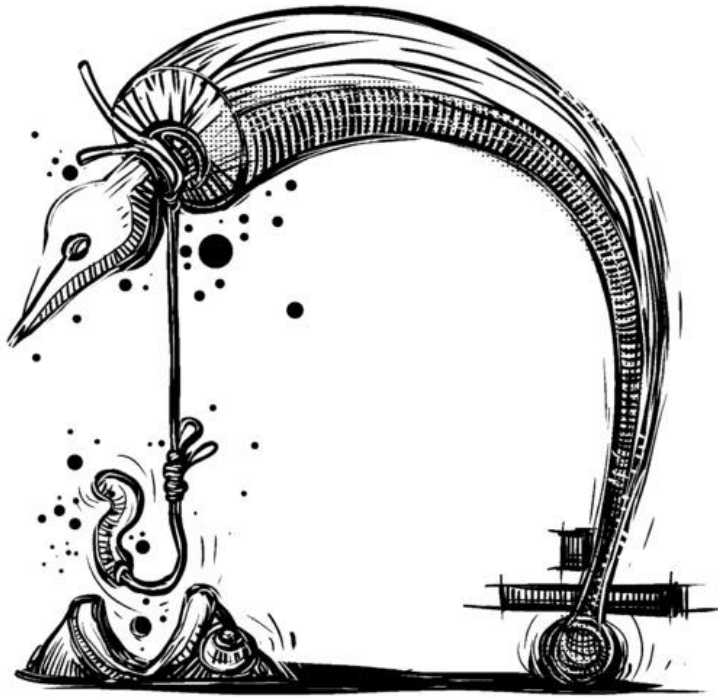
정리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37548.html>

[시민편집인의 눈] 낚시성 기사로 '윙크'하는 한겨레

활동 기록 2016/04/28 11:15.14

[시민편집인의 눈] 낚시성 기사로 '윙크'하는 한겨레 / 김예란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한겨레> 온라인 사이트에는 주요 뉴스들을 배열한 띠 모양의 서비스 메뉴가 있다. 기사 본문 윗단에 배치되어 주요 뉴스들의 제목과 이미지가 제시되는 형식이다. 그런데 나는 주요 뉴스 서비스에 자주 '낙이곤' 한다. 그리고 이 불운은 내 실수이기보다는 주요 뉴스 서비스, 나아가 <한겨레>의 취재 및 보도 방식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

낙시성 기사의 일면들

주요 뉴스 서비스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주요 뉴스 서비스에 나온 제목과 본기사 제목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 심지어 주요 뉴스 서비스의 제목, 본기사 제목, 기사 내용이 각기 다른 사례까지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박근혜의 7 시간, 아베의 26 분...참사 대처하는 태도'(4 월 20 일치)라는 주요 뉴스 서비스 제목을 클릭할 때 뜨는 본기사의 제목은 '지진 '26 분' 만에 나타난 아베, 4 일간 '9 차례' 직접 브리핑'이었다. 더욱이 기사 본문에는 대통령의 행적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김용옥 인터뷰 기사에 대한 주요 뉴스 서비스 제목은 '도올 "더민주,



지들이 잘해 이긴 줄 알면 폭삭 망한다””였다. 그러나 막상 실제 기사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기사 제목은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리니언트한 제국 되지 않을까’였다(4 월 23 일치).

주요 뉴스 제목과 기사 제목이 일치하지만 기사 내용과 동떨어진 경우도 왕왕 있다. ‘우리는 왜 설현의 손짓과 송중기의 눈빛에 무너지나’라는 주요 뉴스 제목을 클릭했을 때 등장한 기사는 신경경제학을 설명하는 정재승 교수의 과학 칼럼이었다(4 월 23 일치). 이 칼럼에서 송중기와 설현은 광고 사례로 짧게 언급된 정도다. 제대로 낚인 이가 비단 나쁜만은 아닌가 보다. “제목으로 낚였음(...) 아무데나 송중기 이름 팔지 맙시다”나 “와 제목 한번 기가 막히게 뽑았네”같이 빈정 상한 댓글들이 이어진 걸 보면. 정말이지 이런 제목 수법은 송중기의 남용일 뿐 아니라 독자에 대한 배신이고 칼럼 필자에게 무례하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넘겨버릴 수 있지만 그대로 쌓이면 신뢰에 흠이 갈 실수들도 빈번히 발견된다. “돈줄 통장, 추선희 차명계좌”... 전경련 돈 입금되자 일’의 제목 경우에, 기술적인 한계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을 거라 짐작은 해보지만, 독자로서 해독할 수 없는 기사 제목을 대면하는 경험이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4 월 22 일치).

낚시성 기사, 본능인가? 무능력인가?

백번 양보해서 주요 뉴스 제목의 목적이 제목들의 기계적인 일치에 있지 않고 기사의 ‘관전 포인트’를 안내하는 친절에 있다고 호의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적용하기엔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주요 뉴스 제목과 기사 제목은 때론 일치하지만 어긋나기도 해서 그저 제각각으로 뒤죽박죽이다. 이쯤 되면 자신이 기대했던 기사를 실제 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번 클릭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규칙성이 단지 우연적이지만은 않게 보이는 경향성을 띠는 점에 있다. 대체로 어려운 경성 기사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가공되지만, 기사 자체가 오락적이거나 쉽게

흥미를 끌 만한 것이어서 더 이상의 가공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제목들이 일치하는 편이다.

물론 클릭 수에 따라 거액의 광고수입이 좌지우지되는 인터넷의 주목경제 질서로부터 어느 언론사인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저급한 언론일수록 선정적이고 과장된 기사 제목을 띄워서라도 독자의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욕구를 본능적으로 발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올바른 기사로 독자의 충실한 관심을 형성하고 그렇게 싹튼 독자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고 굳건하게 키우는, 품위 있는 적극성으로 대응한다. 이 점에서 <한겨레>가 천박한 상업적 언론의 저속한 기술을 답습하는 양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저널리즘의 품질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의도만 앞서지 기사로 충실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취약함도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박근혜의 7 시간, 아베의 26 분" 기사가 격을 갖추려면 '박근혜의 7 시간'에 관한 본격적인 탐사보도가 이루어져야 했다. 이 일이 정 어렵다면 양국의 정치인 비교가 지니는 함의에 관한 해설이라도 나왔어야 했다. 이와 달리 보도의 실질적인 깊이는 결한 채 제목으로 분위기만 키우는 식의 기사란, 정치적 야망은 크지만 그것을 지지할 취재력과 해석력은 미흡한 부실 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 진보언론의 근본 자세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는 비판정신의 작가로 유명한 조지 오웰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선언할 만큼 급진적인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그가 노동자들의 고통 어린 삶을 취재하여 남긴 통렬한 르포르타주다. 이 글을 쓰기 위해 그는 수개월간 광부의 집이나

싸구려 여관에 머물며, 절망과 탐욕에 젖은 채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한 여인의 얼굴이 지금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지칠 대로 지친 해골 같은 그 얼굴은 더없이 비참한 신세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 참담한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아이 여럿을 깨끗이 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나더러 온몸에 똥을 뒤집어쓴 기분을 느껴보라고 말하는 듯했다”라는 한 묘사처럼, 똥을 뒤집어쓰는 듯한 절절한 체험과 날카로운 통찰이 뒷받침되었기에, 계급모순 비판 및 사회주의적 대안을 역설하는 그의 급진적 주장이 비로소 설득적일 수 있었다.

한편 “우리 이 정도면 통하잖아?”라며 ‘윙크’하는 언론은 허황되고 불성실하다. 다양한 성격의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와 의견을 폭넓게 전달해야 하는 본질적 책무는 망각한 채, 끼리끼리의 폐쇄적 소통코드를 유도, 강화하는 폐해를 낳기 때문이다. 설사 이런 코드가 사회 안에 해석공동체를 구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인류학자 클리퍼드 기어츠의 명언대로 작은 ‘눈짓’의 미묘한 의미가 잘 통하기 위해선 엄청난 깊이의 ‘두꺼운 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그렇다면 좋은 언론이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또 그만큼 절대적이다. 미셸 푸코가 설명한, ‘두려움 없는 발화’의 뜻을 지닌 ‘파레스시아’(parrhesia)의 요건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근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푸코에 의하면 파레스시아는 솔직, 진실, 용기, 비판, 자발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즉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외부의 강요나 위협에 맞서, 오로지 자발적인 의지에 힘입어 자유롭게 투명하게 말함을 뜻한다. 이 원칙은 오늘날 언론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덕목이다. 반면 진보정치를 외치면서도 자기 노력에는 게으른 낚시 언론은 거짓, 허위, 두려움, 아첨, 유혹과 강요라는 값싼 미끼에 스스로 낚여 병들어 간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1604.html>

[독자의견] 스포츠 지면에 더 많은 정보 담아야  
독자 의견 2016/04/28 11:17.07

[독자의견] 스포츠 지면에 더 많은 정보 담아야

11년째 <한겨레>를 구독 중이라는 70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티브이 편성표에 나오는 ‘2016 타이어 O뱅크 KBO 리그(KBS 엔 스포츠)’, ‘2016 KBO 리그(SBS 스포츠)’ 식의 중계 프로그램 제목만으로는 오늘 어떤 팀이 경기하는지 알 수 없다”며 “스포츠면에 ‘오늘의 경기’를 알려주는 코너를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겨레>는 이 의견을 수용해 중단했던 ‘오늘의 경기’ 코너를 지난 13일 부활시켰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1602.html>

[독자의견] ‘흙수저고’라는 표현, 학생들에게 상처  
독자 의견 2016/04/28 11:18.36

[독자의견] '흙수저고'라는 표현, 학생들에게 상처

자신을 학부모라고 소개한 40대 독자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보도된 기획시리즈 "학생부의 배신- 불평등 입시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들을 '흙수저 학생', 이러한 학생들의 비중이 큰 학교를 '흙수저 고교'로 표현한 것에 대해 독자는 "제목이 기사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는 "기사에 언급된 학생들과 해당 학교 출신 졸업생들이 기사를 읽고 혹시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생각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1602.html>

[댓글중계] 보수단체와 국정원 야합에 "내 이럴줄 알았다"

활동 기록 2016/04/28 11:21.36

댓글 중계 보수단체와 국정원 야합에 "내 이럴줄 알았다"

지난 25일 <한겨레>는 18대 대선 당시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빼버린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4월 25일치 1면, "'좌익효수' 댓글 수백건 중 10건만 기소했다") 이튿날인 26일에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방법을 통해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한 정황을 전했다.(4월 26일치 1면,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 관련 기사에 "내 이럴 줄 알았다"(sk\*\*\*\*) 등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역행에 앞장선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누리꾼들은 놀라지 않았다. '내집\*\*\*\*'은 "또 국정원이나... 이쯤 되면 해체가 답"이라고 말했고, 'mo\*\*\*\*'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이라니ㅋㅋㅋ 놀랍지도 않다ㅋㅋ"며 웃었다. '말리\*\*\*\*'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기사로 확인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썼고, '강시\*\*\*'는 "상상 이상이네요. 한겨레, 알려줘서 감사!!"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을 꾸준히 보도하는 언론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도리어 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것에 대해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JS\*\*\*'은 "국정원은 뭐하는 곳이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곳이야?"라고 썼고, 'ht\*\*\*'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정원 해킹 의혹, 세월호,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휘까지, 국정원은 안 끼는 데가 없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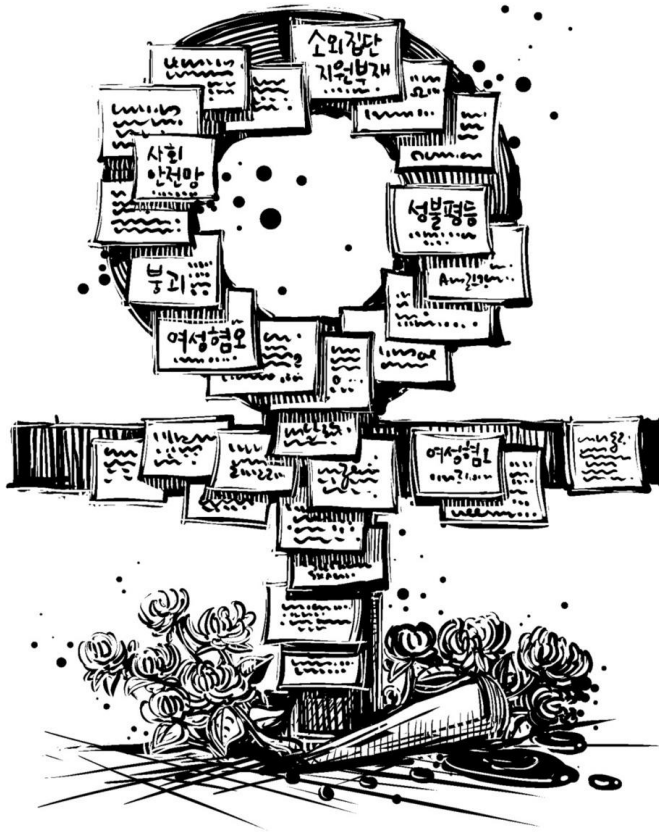
4·13 총선 이후 보수단체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가 야합한 흔적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투표의 중요성! 정권 바뀌면 볼만하겠다"(th\*\*\*), "대세가 바뀌니 빵빵 터지는구나"(고요\*\*\*), "제 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다"(리진\*\*\*)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만큼, "이쯤 되면 대통령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일신\*\*\*)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1514.html>

[시민편집인의 눈] 어디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성혐오  
활동 기록 2016/05/27 15:23.13

[시민편집인의 눈] 어디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성혐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누적된 오래된 문제들을 일시에 드러냈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에서 보듯이 한 죽음에는 욕망과 증오를 포함한 서로 다른 기억과 망상이 녹아 있다. 갈등으로 엉켜 있을수록 언론이 시야를 넓고 깊게 키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평온한' 일상의 폭력성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은 '여성 대 남성'이라는 거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사회의 안전망 붕괴, 소외집단에 대한 지원 부재,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에 여성혐오라는 일그러진 심리가 얹혀 있다. 반면 복합적인 요인과 맥락에는 눈감은 채 사건의 외피를 좇는 취재·보도의 문제점이 신문 지면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고인에 대한 추모가 절정에 달했던 5월 21일과 22일 동안의 <한겨레> 지면을 살펴보자.

전체 기사 지형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좋은 온라인 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기준으로 할 때 살인 사건 및 추모행사 관련한 몇 개 기사가 비교적 크게 다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이 등장한 기사는 손꼽을 정도다. 그나마 여성 해당 기사들도 “술 마실 때 담배 더 찾는 이유”의 핑크빛 립스틱을 바른 매혹적인 여성, “‘역사 무지’ 이토록 몰매 맞을 일인가”의 설현과 지민의 딱한 모습 등을 담은 이미지들에 불과하다. 요컨대 지면 전체에서 여성의 비중은 매우 적으며 설사 여성이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용과 무관하게 성애화되거나 희화화된 이미지로 활용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는 더 이상 놀랍지 않은, 남성 중심적 언론 질서의 전형이기도 하다.

사회면의 하위 범주인 여성면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여성면의 최근 두 개 기사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 관련된 보도이지만, 그다음에는 대체로 가볍거나 좁은 시야의 기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욱’하고 치밀어 오를 때 ‘꼭’ 참고 이렇게”라는 제목의, 워킹맘의 고달픈 현실을 다룬 기사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직장 내 차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전 <뉴욕 타임스> 기자인 레슬리 베네츠의 주장을 전하면서도 우리 워킹맘들에게는 ‘사표 쓰고 싶은 날엔 종이 한 장을 꺼내 사표 손익계산서’를 써보고 훗날 ‘여유히 웃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 식으로 스스로 달래기를 권한다. 하긴 이처럼 개인적으로 삭이는 편이 현실적으로 영리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듯 ‘착하게 살아남기’를 권하는 기사에 선뜻 공감되지는 않는다.

여성 차별적인 담론 질서는 단지 <한겨레>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성혐오’ 단어는 누락되어 있다. 최근 2~3 년간 혐오에 대한 체감 수치가 위험스러울 정도로 높아졌음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현상을 사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어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셈이다. 개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불가능하며, 사유가 막힌 상태에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의 ‘평온한’ 일상이란 이렇듯 전면적으로 편재하는 불감증의 가면일 따름이다. 더욱이 우리는 여성혐오에 대해 분열적인 무의식을 가진 듯하다. 사건으로서 여성혐오는 분노의



대상이지만 오락으로서 여성혐오는 향유의 대상이다. 다수 관객의 사랑을 받은 한국 영화의 한 영역은 이유 없이 죽어가는 여성들과, 그녀들을 해치는 매력적인 남성 악인이나 구원하는 멋진 남성 영웅의 서사로 특징화된다. 이처럼 우리는 혐오 현상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공포를 즐기는 이중 심리를 익숙하게 체득, 실행하고 있다.

이항대립을 넘어서 공존의 가치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한 <한겨레> 기사들에서는 '정신분열자 대 여성 약자'라는 이분법이 내비친다. 또한 딸 가진 부모의 걱정, 언니들의 위로, 강남역 같은 서울 변화가에서 일어났기에 더욱 충격적이라는 시민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 중산층의 가족주의적 시각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한 생활공간의 외부(이를테면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소외 계층)에 위치한 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소는 간과된다. 여성과 남성의 대치 구도 역시 심각하다. 본연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은 각자 단일한 집단으로 분리되어 획정될 수 없다. 남성들 사이의 차이, 여성들 사이의 차이가 있는 한편 여성과 남성 간에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통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반성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기사화되었는데, 나는 그 진정성에는 동감할지라도 시각 자체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애초에 구성원들이 성별에 따라 피해자(여성) 아니면 가해자(남성)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사회란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 취재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제언하고 싶다. 기사의 대부분은 추모 현장과 해프닝 소개 및 거리 인터뷰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했다. 추모라는 특별한 사건에 발동되는 사회적 감정 작용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고 일시적이다. 따라서 감정의 물결을 타는 안이한 관행을 넘어 제도와 상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접근이 취해져야 한다. 이 혼란스러운 사건의 원인, 과정, 효과, 함의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이 요청된다. 예컨대 우세한 위치의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혐오와, 사회적으로 말단부에 버려진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혐오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분별되고 각각에 적합한 사회적 처방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젠더 불평등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빈곤, 문화적 시민권, 복지와 안전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여러 층위의 모순들이 응집해서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표출되었을 때, 살인을 한 그 누군가-그가 가난하고 심신이 병들었다면 더욱이-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일은 어쩌면 가장 '간편한' 해결 방법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한 취약한 인간에게 투과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일이 해결된다고 믿는 태도는, 정신분열자가 사회에 대한 모든 증오를 여성에게 투영해서 무차별 살인을 범하는 일만큼이나, 잔인하고 부조리하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탁월한 정치철학자이며 페미니스트이고 퀴어이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는 최근의 저작에서, 지난 삼십여년간 자신의 관심이 성적 소수자에서 더욱 일반적인 소수자들, 즉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박탈당하여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는 인민 모두에게로 넓혀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차이를 가로지르며 공통성을 생성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창출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정치적 명령임을 역설한다. 이는 강파른 차별 질서에 얽매인 채 폭력과 혐오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비참한 현재에,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지향해야 하는 젠더 정치의 가치이기도 하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5463.html>

[독자의견] 보도 이후 변화, 계속 알려주길

독자 의견 2016/05/27 15:24.51

보도 이후 변화, 계속 알려주길

#### 독자 의견

자신을 애견인이라고 소개한 20 대 독자가 '강아지 공장' 실태를 고발한 <동물농장>(에스비에스) 제작진 인터뷰 기사(5 월 24 일치 26 면)를 읽고 의견을 전해왔다. 독자는 "방송으로 전해지지 않았던 내용을 피디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처리 과정 등 변화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465.html>

[독자의견] 그래픽 속 글자크기 더 키웠으면

독자 의견 2016/05/27 15:25.57

그래픽 속 글자크기 더 키웠으면

#### 독자 의견

60 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지면에 실리는 그래픽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독자는 "그래픽에 쓰이는 글자의 크기가 작아 무슨 말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독자는 "표나 그래픽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고 싶은데 내겐 무용지물"이라며 노인 독자를 위해 그래픽 속 글자크기를 키워달라고 건의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464.html>

[댓글중계] 2030 성대결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 살펴야

활동 기록 2016/05/27 15:28.01

2030 성대결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 살펴야

### 댓글 중계

지난 17 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경찰의 선긋기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통해 여성혐오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겨레> 기사에 댓글 수천 개가 달렸다.

피해 여성을 향한 추모 열기가 '2030 성대결'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자 일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나도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남성들'(5 월 23 일치 3 면) 기사에 누리꾼 '애플\*\*\*'은 "이런 멋진 남자들도 있구나"라고 썼고, 'vh\*\*\*'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라고 말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표현에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많았다. '모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모든 여성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보지 않는 것처럼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 여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jy\*\*\*'는 "표현 하나에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자신이 해당 안 되면 타격도 없을 텐데요"라고 남겼다.

누리꾼들은 여성혐오 정서가 만연하게 된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기사를 읽고 반가운 마음을 나타냈다. "'○○녀 만드는 언론도 가해자다"'(5 월 23 일치 2 면) 기사에 'ao\*\*\*'는 "맞다. 언론이 자극성만 쫓아서 안 된다"고 썼고, 'sa\*\*\*'는 "'여자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식의 보도 행태를 지적해줘서 고맙다. 한겨레 데스크는 이런 기사 '킬' 안 시키나 봐요.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부장적 억압 덜 받았던 2030 여성 분노 더 큰 이유' (5월 24일치 7면) 기사에 누리꾼 '가끔\*\*\*'은 "평소 알게 모르게 당하던 차별에 대한 서러움이 터진 것 같다. 당장 바뀌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썼고, '거위\*\*\*'는 "건강한 청년들이 차별을 겪는 것은 잘못된 사회구조 탓이지 여러분 탓이 아니"라며 남녀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5466.html>

[시민편집인의 눈] 언론은 무엇으로 소통하는가

활동 기록 2016/06/30 14:00:00

[시민편집인의 눈] 언론은 무엇으로 소통하는가/김예란

강준만 교수는 <한겨레>에 기고한 "언론도 소통합시다"(5월 2일치 30면) 칼럼에서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분석하는 일에만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언론의 양태를 가리켜 '싸움과 당파성을 판매하는 상인'에 비유한 바 있다. 언론의 '소통 불능 상태'에 대한 강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는 언론의 소통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 언론의 소통을 제시하는 방법론과도 연관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실상 우리가 읽는 뉴스란 전부 언론이 다른 기관, 조직, 매체, 사람들, 즉 세상과 소통한 내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은 어쨌거나 무수히 소통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언론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더 정확히 말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은 소통의 '무엇'뿐 아니라 '어떻게'에서도 기인한다.

## 익명보도의 실제와 피해

2007년에 공포된 한겨레 취재보도준칙의 '정직한 보도' 조항은 '취재원의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이 익명을 전제로만 말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정보 입수의 대안적 방법이 없을

때, 또는 실명 보도가 취재원을 각종 위해나 신분상 불이익에 노출시킬 우려가 있을 때 익명 표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한겨레에서 취재보도준칙이 대체로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익명 또는 유사 익명 표기의 흔적 또한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익명 취재원을 대체하는 익숙한, 그러나 수상한 명사들이 있다. '일각' '일부' '관계자' 심지어 '핵심 관계자' 등이 그것이다. 취재성의 익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동사들이 가세하기도 한다.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할 때 애용되는 '술술' '새어나온다' '전했다'가 흔히 사용된다. 어떤 정보가 어디서 왜 새어나와 전해지며 그 관계자가 누구이고 그의 입지와 시각이 어떠한지에 따라 정치 지형이 상이하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이 모호한 말들처럼 쓰기에 편리하면서 읽기에 무용한 단어도 없다.

익명 보도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언론사의 신뢰도가 훼손된다. 더욱이 이 양상이 심화되면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시민과 정치의 관계가 병든다. 이를테면 취재원이 익명화될 때 빈이름을 대체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파별화 기법이 피해의 한 유형을 이룬다. 한겨레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령 취재원들, 즉 '친박계' '비박계' '깁박계' '일부 강성 친박' 등 치졸한 파별들은 그 명칭 자체가 서로 쪼개고 뭉치며 당쟁에 몰두하면서 국정에는 무관심하고 문제 해결에는 무기력한 정치현실을 드러낸다. 더욱이 조잡한 파별화 보도 방식은 발언 및 행동 주체를 흐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피로와 냉소를 낳고 정치행위를 파별 간 경쟁구도로 재현한다. 이러한 정치담론화는 잘못된 정치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더 잘못된 정치로 몰고 가는 강력한 현실구성력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왜곡된 정치현실을 관습적으로 재생산하는 대신 각 파별화의 주체가 누구이며 특정 발언을 어떤 관계에서 왜 하는지 규명함으로써, 정치가 행해지고 말해지는 방식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양식의 취재원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준칙 자체가 아직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기에 그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싶다. 가령 디지털 저널리즘의 대표적 장르인 큐레이션 뉴스는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수집, 편집하여 압축적으로 요약, 제시하는 뉴스 양식이다. 다량의 복잡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로 동영상이나 이미지 그래픽을 활용한다. 정보 폭증 시대에 '넓고도 얇은'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뉴스 슬림화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유용한 큐레이션 뉴스의 맹점으로서, 정보의 정확한 출처와 배경이 제거된 채 탈맥락화된 정보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한겨레의 '정치 BAR'가 큐레이션 뉴스의 좋은 일례다. 정치 BAR 뉴스는 카드 배열 형식과 동영상을 결합해 복잡한 사안을 재미있고 유용하게 재구성해서 전달해준다. 그러나 인용 출처와 취재원이 생략되는 기술적 제한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에 머물러 있다. 영국 언론학자 내털리 펜턴이 지적하듯, 뉴스가 간식처럼 심지어 다이어트용으로 가볍게 소비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간식의 영양가와 신선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뉴스 양식에서도 정확성, 타당성,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의미적 장치가 충실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외 정론지들은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뉴스 슬림화뿐 아니라 정보 확충의 장점을 결합하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사의 곳곳에 인용의 출처나 참고자료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기사 내용의 탄탄한 근거로 삼는, 일종의



문헌 취재원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다뤄야 할 정보는 급증하고 그 처리 기술의 정교함은 훼손되기 쉬운 미디어 환경에서 여러모로 유용한 디지털 저널리즘의 좋은 선례다.

## 언론의 의사소통 합리성

언론의 소통이 투명하게 소통되지 않는 언론 현실이 문제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뉴욕 타임스>는 익명보도가 '신뢰성 파괴의 주범'(No. 1 killer of our credibility)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시의성, 시급성, 신뢰성을 포함한 본질적인 뉴스가치가 익명보도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익명보도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익명보도를 할 땐 그 맥락 또한 철저하게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익명보도가 성립하려면 취재원의 정보 습득 경로, 정보 제공 의도, 익명화 자격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익명보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그 불가피성과 적절성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인터뷰 취재의 균형성, 다원성, 철저함이 부족하고 익명보도의 오류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허용되는 우리 언론이 유념하고 각성해야 할 지점이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신뢰의 전달: 디지털 시대의 불평부당성과 객관성>이라는 로이터스 연구소 보고서에서 영국의

리처드 샘브룩 교수는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에서 여전히 준수되어야 할 준칙으로 '증거성, 의견의 다양성, 방법과 가치의 투명성'을 제시한 바 있다.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정보가 넘쳐날 뿐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공중에게 퍼뜨릴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증거를 곁여한 사실 주장'보다는 오히려 '증거를 검비한 하나의 주장'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언론의 소통은 보편의 소통 가치 및 책무와 다르지 않다.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합리성'이라고 부른 소통의 과정적 실천윤리, 즉 명백성, 진리, 정의, 진실성 수행 원리로부터 언론이 예외일 수 없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310.html>

[댓글중계] '갑을관계로 변한 사제지간' 폭로에 "나도 겪은 일"

활동 기록 2016/06/30 14:02:36

[댓글중계] '갑을관계로 변한 사제지간' 폭로에 "나도 겪은 일"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을 통해 대학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염동규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학술국장이 <한겨레> '오늘 사람' 코너 첫 뉴스인물로 나섰다. 대학원생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등을 전한 "교수님이 까라면 까야 하는 '대학원생 삶' 깎다"(6월 27일치 2면) 기사에 댓글 450개가 달렸다.

기사 댓글창은 “노예 같은 대학원생의 삶”을 겪어본 이들의 성토로 가득 찼다. 누리꾼 ‘ab\*\*\*’는 “졸업한 지금도 지도교수님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썼고 ‘wi\*\*\*’는 “너무너무 공감. 나는 석사 졸업생...”이라는 짧은 평을 남겼다. ‘미르\*\*\*’는 “지방대는 더 심해요. 기사에 언급된 내용보다 100 배는 더 노예처럼 살아요”라고 울분을 표했다.

“잘못된 관행을 꼬집어줘서 고맙다”(ke\*\*\*) “참 좋은 일입니다. 사회 곳곳의 부조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wa\*\*\*) 등 대학사회를 내부고발한 작가를 응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박완\*\*\*’은 “주제 잘 잡으셨네요.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라며 교수의 ‘갑질’이 개인 차원을 넘어 대학사회에 만연한 문제임을 지적했고 ‘류정\*\*\*’은 “노예까지는 아니고, 교수님이 입력하면 출력을 해야 하는 기계 같은 존재랄까? ㅋㅋ”라고 썼다. 수직적 문화의 피해자인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깨도\*\*\*’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너희들이 아무런 말도 않고 있으니 변하는 게 없지!”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교육 현장에서 한국 사회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클라\*\*\*’는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갑질하고파 안달인 게 한국인의 특성인가”라고 꼬집었고 ‘오힘\*\*\*’은 “서열문화가 사라져야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나이와 신분에 차별을 두지 말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은 “독일에서는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Doktor(박사)와 Vater(아버지)의 합성어인 ‘Doktorvater’라 부른다”며 “한국에도 학구적이고 신사적인 교수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썼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307.html>

[독자 의견] 브렉시트 사태, 우리와의 연관성은?

독자 의견 2016/06/30 14:06:40

[독자 의견] 브렉시트 사태, 우리와의 연관성은?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70 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보도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독자는 “브렉시트가 세계적 흐름을 바꾸는 큰 이슈라 <한겨레>도 여러 지면을 할애해 보도하고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한 기사도 함께 실어주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309.html>

[독자 의견] 티브이 편성표 폐지에 항의 이어져

독자 의견 2016/06/30 14:08.09

[독자 의견] 티브이 편성표 폐지에 항의 이어져

최근 단행한 지면 개편에서 티브이 편성표가 폐지된 것을 두고 독자 항의가 잇따랐다. 60 대 독자는 “나이 든 사람에게 편성표는 다른 기사들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편성표를 보고 시사 프로그램을 챙겨 보았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70 대 창간독자는 “신문과 방송을 이어주던 통로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당황스러워했다. 한겨레 편집국은 독자 의견을 수용해 편성표를 다시 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0311.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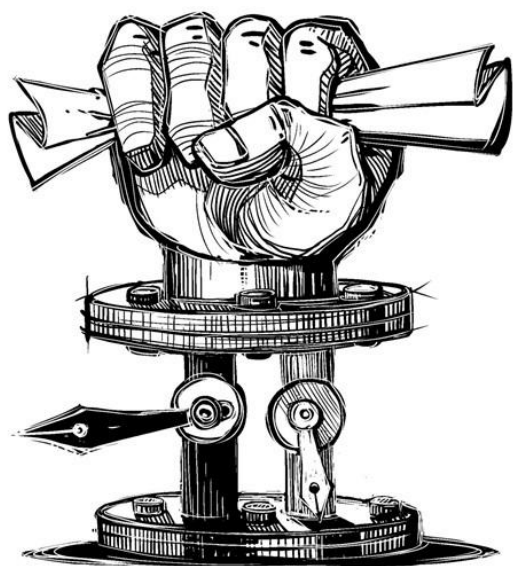
[시민편집인의 눈] 공공연한 비밀과 동물주의

활동 기록 2016/07/29 09:44.36

시민편집인의 눈

나는 지면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대신, 기사 이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문제화하는 방향으로, 이 글을 진행하려 한다.

정치와 동물의 관계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솝우화>에서부터 <동물농장>에 이르기까지, '동물주의'란 본래 권력자를 풍자하기 위한 대중의 정치적 발명품이다. 반면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는 오늘날 우리의 정치 현실이 있다. 여기서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에 나오는 '대중'을 '민중'으로 바꾸어 인용하는 기묘한 착오까지 일으켰는데,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민중'은 유신독재체제 이래 '한국의 진보 진영이 발견'해낸 고유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나향욱의 의도하지 않은 언어 치환은 정치인이 민중에 대해 지니는, 무시와 두려움이 섞인 모순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권력에 대한 동물주의 비판은 때때로 정치인의 범주를 넘어선다. 사실 <내부자들>에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돼지한테 신경을 쓰고 그러십니까”라고 말한 사람은 언론사 주필 이강희다. 이강희는 겉으로는 지성과 품위를 갖추었지만 실제론 대통령을 만들어 내는 실세, 권력 위의 권력자로 등장한다. 대중영화가 당대 사람들의 사회인식을 소박하게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적어도 <내부자들>에 담긴 대중의 마음에서는 정치인과 언론인이

(정도와 방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의 권력 연합체를 구성하는 사이 좋은 '내부자들'로 간주되는가 보다.

#### ■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인가 내부자인가

과연 현실에서 정치가와 언론인의 관계는 어떠할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한국방송(KBS) 보도개입 사건에서, 공식적인 판정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언론 통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느끼고 믿으며 분노한다. 동시에 정치와 언론 사이에 유지되어온 듯한 유대관계도 모호하게나마 감지한다.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 보도국장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그와 이정현은 누구보다도 큰 도움을 주고받는 각별한 선후배 사이였다. 김시곤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아니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라고 말한다(한겨레, 7월 1일치). 경향신문의 나향욱 고발기사에서도 이 문제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경향신문 기자들과 나향욱의 저녁 회식 자리였다고 한다. 이 상황들에는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우선 잘못된 정치-언론 관계를 고발한 언론인의 용기와 판단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은연중에 나타난, 정치권과 언론계의 오랜 친밀관계 그리고 개인, 조직, 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친목과 협조 관행에 대해선 우려가 앞선다.

미국 언론학자 마이클 셔드슨은 저서 <뉴스의 사회학>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간에 맺어진 친밀한 대인관계가 구조적인 상호의존성으로 발전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그 미묘하되 강력한 연계성은 케네디가의 파티에 초대된 한 기자의 고백처럼, 그 융성한 파티 분위기에 젖다 보니 어느덧 '나 역시 그들 중의 하나'가 되고 싶어지는 기자의 열망으로 대변된다. 이처럼 정치인과 언론인 사이의 일상적 친밀감이 정치와 언론 간의 구조적 동질성으로 강화되는 반면, 정치로부터 언론의 독립이라는 저널리즘 제일의 원칙은 파괴되고 그 원칙을 실행하려는 기자의 노력은 더욱 예외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 상황에서 청탁과 강제, 타협과 위협은 실상 그다지 뚜렷한 구분 없이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실행되기 일췌다.

물론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자는 유력한 뉴스 정보원과 평소에 '은밀하고 위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언론계의 항변도 존재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관행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지독하게 고질화되었는데, 이는 박승관 교수의 지적대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사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식민화'된 한국 사회의 비극적 현실에 기인한다.

더욱이 정치권의 소통 개념에 치명적인 죄과가 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존위가 걸린 문제일수록 비밀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고, 들키면 운이 없는 것이라 치부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한겨레, 7 월 15 일치)고 말했는데, 양식을 가진 우리로서는 "위중한 사안일수록 더 사회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정현 보도개입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홍보수석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 들리게 했어야 했다. 들켰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기이한 주장 앞에서, 정파와 무관하게 편재하는 정치인들의 뻔뻔함에 거듭 실망하게 된다(인터넷한겨레, 7 월 5 일치). 이렇듯 많은 겹으로 왜곡된 소통 조건에서 정치권의 보도 청탁 또는 개입은 수시로 일어나고, 언론계에서는 자신의 안전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검열을 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기자들을 협박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이처럼 기형적인 사회구조에서 기형적인 소통문화가 배양되며 기형적인 언론 행위가 양산된다. 또는 그 역도 물론 가능하다.

## ■ 비밀, 공공연한 비밀 그리고 공공의 진실

한국 언론인의 딜레마는 정보 전달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부당한 권력구조와 어떻게 관계를 맺거나 끊어야 할까란 점이다. 김시곤과 이정현이 평소에 그토록 친하지 않았다면, 기자들이 공무원과 회식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진실마저 밝히지 못했을까? 그러나 어찌다 있는

우연적인 행운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항상 지켜져야 마땅한 과정적 정당성은 매번 희생되어도 좋은 걸까?

원론적인 차원에서 '유력' 취재원과 '고급' 정보에 대한 알팍한 강박부터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 정치인이 '비밀'로 만들려는 진실, 민중들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는 진실을 '공공의 진실'로 적극화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다. 또한 권력의 내면뿐 아니라 그에 억압당하거나 대항적인 소수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들리도록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일이 언론인의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인터뷰 및 옥중편지 기사처럼 <한겨레>가 최근 활발히 접근하고 있는 인터뷰 기사 방식은, 유력한 정보원과 기자 사이의 일상적인 친밀관계에서 배양된 '뻘한' 보도 형태가 아니어서 자못 흥미롭고 기대가 크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또한 기만적인 정치-언론 질서에 함몰되지 않고 그에 대해 반동을 도모하는 최근 언론계의 역동은 고무적이다. 현재 한국방송 사태는 정부의 보도개입이라는 매우 암울한 상황에서 싹텄지만, 공영방송의 책무를 회복하려는 기자들의 투쟁의 방향으로 전회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체제 안에 이미, 항상 탈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철학자 질 들뢰즈의 언술에 기대어,



언론의 근본가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실행 가능성을 기자들의 살아 있는 운동 속에서 희망해본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4077.html>

[댓글중계] 의혹 중심에 선 우병우, "더 이상 용납 못 해"

활동 기록 2016/07/29 09:46:00

[댓글중계] 의혹 중심에 선 우병우, "더 이상 용납 못 해"

진경준 검사장 인사 검증 실패, 넥슨코리아와의 1300 억원대 땅 거래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병역 특혜 문제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0 일 <한겨레>는 우 수석의 아들 우아무개(24)씨가 의무경찰 복무 2 개월여 만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된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 "'의경 꽃보직' 간 우병우 아들 특혜 논란"(7 월 20 일치 1 면)에 댓글 1600 개가 달렸다.

자신을 의경 전역자라 소개한 'hh\*\*\*'는 "신병 때 저는 뺨이 없어서 일반 기동대로 발령났는데, 윗선에 불려간 친구들은 꿀중대로 빠지는 걸 보며 '우리나라 경찰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과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있다. 우병우 수석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 아들이 이상철 서울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 중이라는 내용에 누리꾼 'ma\*\*\*'는 "서울청 차장이 운전하고 아드님은 뒤에 앉아 가는 것 아냐?"라고 썼고, 부모의 직업이 스펙으로 작용하는 현실에 'vi\*\*\*'는 "아들아, 미안하다! 능력 없는 개돼지 부모라 너 힘들게 현역으로 보냈네"라며 자책했다.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며 우 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댓글을 통해 본 여론은 싸늘하다. 기사 댓글창에는 “이쯤 되면 사회악 수준”(tl\*\*\*), “이거 완전 비리로 점철된 분이네”(ha\*\*\*), “사퇴하고 조사받길”(az\*\*\*),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sk\*\*\*)와 같이 우 수석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회지도층을 비판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jy\*\*\*'는 “배울 만큼 배워서 고위공직자가 됐을 텐데 본받을 점은 하나도 없구나. 오로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어”라고 썼고, 'hn\*\*\*'은 “한국은 이래서 문제야. 돈,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전부 저러고 있으니... 참 허탈하다”고 적었다.

누리꾼 '무사\*\*\*'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어찌할까. 이 정권은 서민들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고, '애니\*\*\*'는 “사회의 모든 가치가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4087.html>

[독자의견] 지나간 '알림' 아닌 새로운 소식 채워주길

독자 의견 2016/07/29 09:47.49

[독자의견] 지나간 '알림' 아닌 새로운 소식 채워주길

60대 독자가 인물면에 실리는 '알림'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독자는 “알림란에 이미 지나간 행사 소식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끝난 행사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독자는 이어 “행사 내용과 주최 측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꼼꼼하게 적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4086.html>

[독자의견] '말과 글' 이야기 전하는 '말글살이' 되길

독자 의견 2016/07/29 09:49:24

[독자의견] '말과 글' 이야기 전하는 '말글살이' 되길

매주 월요일 오피니언면에 실리는 '말글살이' 코너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이전에는 단어의 어원이나 단어와 관련한 에피소드 중심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일반 칼럼 형식의 내용이 자주 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는 "코너 제목처럼 말과 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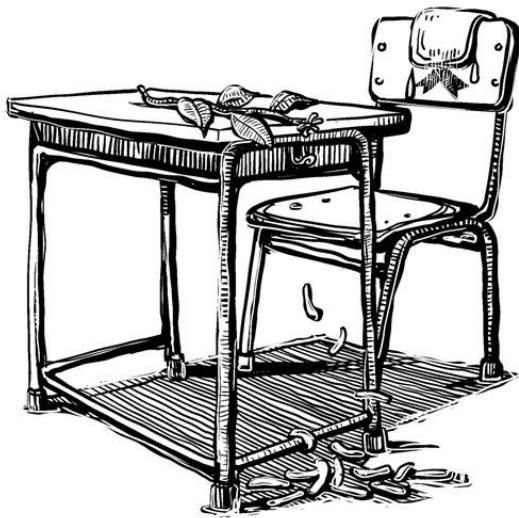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4085.html>

[시민편집인의 눈] 안산과 알레포, 직시와 증언의 책무 / 김예란

활동 기록 2016/08/25 10:10:04

[시민편집인의 눈] 안산과 알레포, 직시와 증언의 책무 / 김예란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보고 말하며 기억해야 하는가는 근원적인 윤리학적 질문이다. 아울러 언론은 사회적 고통을 다수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집합적인 생각과 행동이 형성되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특수성을 지닌다. 반면 나날이 증대하는 현대 매스미디어의 강하고도 악한 위력은 타인의 고통을 스펙터클한 이미지로 전환해서 대량 배포하는 가운데, 멀거나 가까운 곳에 자리한 타인의 고통을 소비의 대상으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데에 있다.

## ■ 알레포의 그들

시리아 내전은 지정학적 갈등부터 내전의 비참함과 난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국제적인 사안임에도 우리 언론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기사들마저도 대부분 정세의 복잡성이나 생명의 고통에 대한 심도 있고 진지한 고찰을 결하고 있다.

한겨레의 관련 기사들을 보면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아사드 독재정권과 연합하여 시리아의 내전을 악화시키고 있는 정황에 관한 맥락 분석은 빠트린 채 현상 기술에 머무는 한계를 종종 발견한다. 예컨대 “러시아는 최근 민간인 피난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제안”했지만, 유엔과 서방이 소극적이라는 <비비시> 인용기사(8 월 16 일치)는 그 단편성으로 인해 시리아 사태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즉 ‘인도주의적 통로’에 작은따옴표가 애매하게 붙여졌지만

이 한 문장만으론 사실과 정반대로 러시아가 진정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오독하기 쉽다. 또한 터키와 쿠르드족 등 관련 요인들에 대한 피상적인 접근은 해당 사안을 건들기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및 지식 전달에 실패하고 있다.

이미지에 대해서도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을 요한다. 고통스런 타인의 이미지는 자칫 호기심이 섞인 관음적인 시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특히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다. 그럼에도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의 함정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를테면 시리아 알레포에서 부상을 입은 후 가까스로 구출된 다섯 살짜리 소년 옴란의 사진은 각국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체로 충격과 눈물의 반응과 함께 묘사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목적엔 차이가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책임감 있는 신문은 옴란을 단지 '놀라움의 대상'(인터넷한겨레, 8월 19일치)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이 사진과 연관 삽화들을 제작하여 미디어에 유통시킨 작가들을 인터뷰하며, 우리가 세계의 비참에 대해 어떻게 보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살아 있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가디언>은 "옴란의 사진이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실천적인 주장과 함께 알레포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의료진의 인터뷰와 칼럼들을 풍부하게 실었다. 이에 비해 한겨레에서는 앞에서 말한 시리아 어린이 사진과 캐리커처는 트위터에서 갈무리되었다는 식(8월 19일치)으로 마무리되거나 하필 이슬람국가(IS)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현장사진이 참고 이미지(8월 15일치)로 실리는 등의 거친 접근이 이루어졌다.

## ■ 안산의 우리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대로, 악을 당연한 일상으로 만드는 집단 심리장치다. 나는 시리아 보도에서 드러나는 결함이 우리와 거리가 먼 지역의 사안이었기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의 원근에 무관하게, 우리 사회와 언론에서는 습관적인 무관심과 생각 없음이 악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난 8 월 20 일은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아이들의 '기억교실'이 단원고를 떠나는 날이었다. 당일 기사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유품을 이전하는 일종의 '미디어 이벤트'로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과정 중에 '순탄치 않은'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점도 보도되었다. 416 가족협의회가 '416 기억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 및 희생 학생들의 유품의 임시 보존 공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란다. 또한 "'(아이들을) 짐짝 취급 하나'는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차량에 물품을 싣는 작업이 한동안 지연되는 등의 진통도 이어졌"다고 한다.

4·16 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발언을 빌려, 지키고 싶었던 교실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된 유가족의 심정이 전해지기는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도 내용은 교실 이전 정책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라 이전 업무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알리는 장면 묘사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유가족들의 '반발'과 '요구'로 일어난 '진통'과 '지연'의 내러티브는 오히려 기억교실 이전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으로 당연시하는 논리를 강화한다. 반면 기억교실 이전이라는 사건 자체의 정당성과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은 질문되지 않는다. 또한 유가족의 태도를 피울음과 안타까움으로 단순화하여 묘사함으로써, 이분들이 현재 어떤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행동들로 현실에 대응하고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자 고투하는지, 그 실재하는 치열함과 도저함은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적어도 내가 기억교실 예정일 이틀 전에 만난 유가족들은 교실 이전에 대해 언론보도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분들은 단원고 교사들의 전근이나 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안산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흔적 지우기'에 공분하고 있었다. 지역의 해체는 그 기억을 공유하고 진실을 함께 밝혀야 할 공동체의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억교실은 아이들의 기억이 섬세하게 기록된 애뜻한 공간일 뿐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못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자녀들을 억지로 앉혀 두었던 바로 그 공간이라는 점에서, 회한과 반성의 기록이기도 했다. 한 어머니는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기 위해

상기되어져야 하는 비판정신의 공간으로 기억교실을 이해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국민들이 교실만큼은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직시와 증언의 책무

언론이, 유가족들이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자 한다며 취재진에 대해 교실 문을 닫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더 오래 그들을 만나보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안산이 어떻게 부서지고 있고 유가족들의 간절한 고통과 희원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깊게 취재했더라도, 기억교실 이전 사안이 '멀리서 바라보기' 식의 일정 보도로 단순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란다.

나와 떨어진 타자의 고통에 대해 단순한 연민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힘을 발할 때 세계는 조금씩이나마 더 낫게 바뀔 수 있다는, 루크 볼탄스키의 주장을 상기하게 된다.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정치의 시작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세계에 이미 빚지고 있다. 그러기에 언론은 우리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을 직시하고 증언하면서 공동체적 삶의 기억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8178.html>

[독자의견] "신조어 뜻 알 수 없어 답답"

독자 의견 2016/08/25 10:13.14

[독자의견] "신조어 뜻 알 수 없어 답답"

70 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헬조선'의 의미를 물었다. '지옥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신조어라고 답하자 독자는 "늙은이가 사회에 적응하려고 신문을 보는데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퍽퍽 막힐 때가 있다"고 말했다. 독자는 "사전에 없는 말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한겨레가 늙은이도 배려하는 신문으로 남아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8151.html>

[독자의견] 결과 전달 넘어 대안 제시 해주길

독자 의견 2016/08/25 10:14.34

[독자의견] 결과 전달 넘어 대안 제시 해주길

지난 8 일 <한겨레>는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와 세이브더칠드런의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대구 어린이가 전북 어린이보다 왜 행복할까" 기사를 읽은 전북 거주 독자가 "연구결과뿐 아니라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속보도까지 책임지고 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8153.html>



[댓글중계] 공항 미화원 '눈물의 식발'에 "지지와 감사"

활동 기록 2016/08/25 10:15.47

[댓글중계] 공항 미화원 '눈물의 식발'에 "지지와 감사"

지난 12 일 김포공항 비정규직 미화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의 성추행 등을 폭로하며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김포공항 미화 용역업체 지앤지(G&G) 관리자 중 다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출신이다. '낙하산' 인사들이 미화노동자들에게 독선적 행동을 한 사실을 전한 '30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공항 마피아'가 추행·폭언도'(8월 15일치 13면) 등 관련 기사에 댓글 400여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본부장이 멍이 들도록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미화노동자 증언과 '5분 동안 물이나 커피를 마시다 들키면 시말서를 쓰게 했다'는 노조 주장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yr\*\*\*'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갑질이야. 낙하산 나부랭이가"라고 썼고, '오해\*\*\*'는 "여성 대통령 시대에 70년대에 일어날 법한 쇼킹한 사건이..."라며 놀라워했다.

용기 낸 어머니들을 응원하는 글도 이어졌다. '배우\*\*\*'는 "저분들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업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했고, 'ja\*\*\*'는 "오죽하면 이렇게 나셨을까? 미화원 무시하지 마라.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or\*\*\*'은 "우리 부모님이 저런 환경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슬픔을 나눴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봄날\*\*\*'은 "적어도 내 어머니, 내 누이, 내 아내, 내 딸이 나가 일하기에 안전한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고, 'ha\*\*\*'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치인들도 이 기사 봤겠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겠다"(후니\*\*\*), "낙하산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플렉\*\*\*),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님 이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ma\*\*\*) 등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지적도 잇따랐다. 'qw\*\*\*'는

“비정규직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눈감고 외면하면 언젠가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함께 짊어진 그늘을 걷어내다 보면 모두 밝은 태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연대를 통한 희망을 이야기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8155.html>

[시민편집인의 눈] '여성' 대통령 사용 설명서 / 김예란

활동 기록 2016/09/29 11:10.08

[시민편집인의 눈] '여성' 대통령 사용 설명서 / 김예란



'여성' 대통령에 관한 사용 설명서라는, 자칫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제목에서 불편한 독자가 혹 계실지 모르겠다. 호의의 노파심에서 설명을 곁들이자면 여기서 사용 설명서는, '루저문학'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은 전석순 소설가의 <철수 사용 설명서>의 제목에서 빌려 왔다. 철수는 취업, 연애 등 청춘사업의 모든 방면에 실패한 후 세상에 대해 무용하게 된 불운을 한탄하며 자신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철수의 '사용 설명서'다.

사용 설명서에는 철수라는 인물의 사용주의서, 사용후기, 환불이나 교환 방법들이 친절히 소개되어 있다.

타당한 의혹 제기를 '폭로성 발언'으로, 비판을 '비방'으로, 논쟁을 '국기문란'이라고 밀쳐내면서 거부, 묵살, 분노, 궤변 말고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신경증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선 무언가 크게 잘못된 고장의 징후가 농후하게 나타난다. 루저 청와대를 수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 ■ '여성'이면서 '정치인'

전통적으로 정치는 합리적인 이성과 속의가 중시되는 '남성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요즘은 그 성격이 크게 바뀌고 있다. 정치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하고 정치인과 셀레브리티 현상이 중첩되며 정치적 지지가 팬덤과 섞이는 분위기에서 정치인에게는 정책 못지않게 이미지가 큰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와 맞물려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바, 여성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의 접점에서 여성 정치인의 위상과 성격은 남성의 경우보다 한층 더 모호하고 복잡하다.

여성 정치인들이 남성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공인으로서 정치적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한편 여성성이 강조되는 셀레브리티의 역할까지 겸하기를, 대중들은 요구하고 욕망한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때로는 매우 엄격, 정확하고 사무적이며 근면한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근사하고 매혹적인 여성적 이미지로 표출되기도 한다.

미디어에서 여성 정치인이 과잉된 자기 통제로 인해 억제되고 권위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동시에 농담과 조롱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식의 분리 현상을 겪는 이유도 유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강성이든 연성이든 자연스럽지 않은 과도함의 전형으로 여성 정치인이 표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 등의 유명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성과 정치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이력은 익히 알려져

있다.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는 핏대 세워 날카롭게 퍼붓는 공격적이고 똑똑한 '여성' 이미지만 줄인다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녀의 정치생명은 여성성 조절 수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 경우는 후보 경쟁자였던 앤드리아 레드섬이 '자녀가 없는 메이보다는 내가 총리로서 훨씬 적합하다'는 망발을 하며 총리로서 인격 미달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함으로써, 역으로 쉽게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다. 모성성에 대한 편견과 그에 대한 반동이, 자녀가 없는 그녀에게 오히려 정치적 이점으로 작용한 셈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 중심적이고 활동성 강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그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외모 관리에 있어선 투박하고 덜렁거리는 인물로 조롱받는 고역을 치러야 했다.

미디어학자 리스벳 판조년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정치인은 개인사와 여성성의 측면을 억제하는 식으로 정치인으로서 성공을 일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성적 매력에 정치적 장점으로 추가되는 남성 정치인들과 대비되는 측면이다. 여성 정치인의 경우에 여성적인 매력이 부각되면 연약하거나 정치라는 큰일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성성을 통제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정치계는 여전히 남성지배적이며, 탈여성화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발휘하는 일종의 자기 보호-강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 ■ 부패한 청와대와 비틀어진 여성성

박근혜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정치인으로 등장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일그러져 있다.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속에서 박 대통령은 독단과 부패에 빠진 여성의 전형이 되어가고 있다. "혼자서는 옷을 사지도, 머리 손질을 하지도 못하"고, "부모 잃고, 친동생들과도 사이 틀어지고, 그 자신 결혼도 하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고립된 인물로 그려진다. 그 때문인지 "주얼리숍에 가서 브로치 사다주고, 옷 맞춰주고, 관저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연속극 보"는(<한겨레> 9월 24일치) 친구가 비리의 원천으로 성장하도록 방관 또는 공모한, 나쁘거나 무능력하거나 혹은 둘 다 모두인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담론에 가부장적인 시각이 섞여 있다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하자.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청와대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비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결함을 여성 셀레브리티로 갱으려는 무모한 욕망을 펼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유별난 해외 순방 취미는 이미 세간에 유명하고 '한복외교'라는 이름 아래 '한복 입고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것'을 뿌듯하게 즐기는 모습도 널리 알려졌다. 이는 정치인과 셀레브리티의 역할 사이에서, 정치인으로서는 모르쇠로 밀어붙이는 한편 연예계 스타처럼 주목받는 여성으로 스스로 띄우는, 분열적이고도 허황된 '여성' 정치인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고장 때문에 대통령 보도 기사 역시 참담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 관련 기사는 부재, 침묵, 거부, 오만, 고집 등 불통과 강압을 표현하는 어휘들로 가득 차 있다. 사실이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는 언론을 탓할 수만도 없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정책 및 정치효과에 관한 뼈있는 언설은 증발된 지 오래다. 건강한 정치 담론이 사라진 자리엔 '문고리', '오장육부'같이, 비틀어진 여성성을 떠받드는 부패한 기운을 뜻하는 역겨운 상징어들이 난무한다.



여성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싹이 제대로 크기도 전에 고사할까봐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국 사회에 미비한 여성 정치인의 사용 설명서를 기본부터 충실히 마련해야 할 때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165.html>

[독자의견] 의미있는 사건은 컬러 사진으로

활동 기록 2016/09/29 11:12.25

[독자의견] 의미있는 사건은 컬러 사진으로

“이희호 평전을 챙겨 읽고 있다”는 80 대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전화해 “기사에 인상적인 사진도 함께 실리는데 사진이 흑백이라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독자는 “2000 년 6 월 남북정상회담처럼 상징적인 사건의 사진은 천연색으로 보면 더 감동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독자는 이어 “지금 남북관계가 흑백사진처럼 어둡다”며 “생생하던 그때가 그림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128.html>

[독자의견] 지진 대응 정보 알려주길

독자 의견 2016/09/29 11:13.40

[독자의견] 지진 대응 정보 알려주길

겪어본 적 없는 규모의 지진이 한반도를 덮치자 지진 대응 매뉴얼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랐다. 부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독자는 “이번에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더 강력한 지진이 온다면 그때 어찌될지 모른다”고 운을 뗐다. 독자는 “지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전용 정보”라며 “한겨레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mailto: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127.html>

[댓글중계] 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히고 넘어가야”

활동 기록 2016/09/29 11:16.34

[댓글중계] 최순실 게이트, “진실 밝히고 넘어가야”

<한겨레>는 지난 20 일 최순실씨가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걷어 만든 재단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보도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신호탄이 된 '대기업돈 288 억 걷은 K 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9 월 20 일 1 면) 기사에 300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여유\*\*\*'는 "수백억짜리 재단을 만들어 마사지사를 이사장직에 앉힐 정도라니...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일지 감도 안 온다"고 썼고, 'cb\*\*\*'는 "야~ 이것들 보라. 점점 흥미진진해지네"라고 말했다. 'so\*\*\*'는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라고 적었고, '쥐를\*\*\*'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걸까"라며 궁금해했다.

'전경련이 돈 걷고 문체부 초고속허가...'미르' 'K 스포츠' 판박이'(9 월 20 일 4 면) 기사에 'ko\*\*\*'는 "실망을 넘어서 짜증난다. 정치인과 기업인들 수준에"라고 썼고, '위터\*\*\*'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역대 최고 스캔들인데? 재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수십억씩 내놓을 리 없고, 뭔가 있긴 있나 본데"라며 드러나지 않은 실체에 관심을 보였다.

케이(K)스포츠재단의 창립 총회 회의록 또한 거짓으로 작성됐음을 보도한 'K 스포츠, 총회 회의록도 정관도 위조했다'(9 월 21 일 1 면) 기사에 'yc\*\*\*'는 "이런 불법 재단에 수백억원 모금?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말했고, 'mk\*\*\*'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나라"라고 적었다.

박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째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해당 기사 '최순실 의혹을 "비방·폭로"로 호도...박 대통령 '궤변'"(9 월 23 일 4 면)에 'ap\*\*\*'는 "정작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누구인지 당사자만 모르네"라고 적었고, 'jk\*\*\*'는 "욕하긴 지겹고 이젠 안쓰럽기까지 함"이라고 썼다.

“이번 건은 진짜 밝혀져야 함. 어렵지만 가능성 있음”(pk\*\*\*), “매년 비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청와대의 감추기는 여전하다”(auro\*\*\*), “검찰이 두 재단의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tw\*\*\*) 등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기사마다 줄을 이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sprinter@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3292.html>

[독자의견]자주 쓰는 외래어라도 독자 배려해야  
독자 의견 2016/11/18 10:22:03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독자의견]자주 쓰는 외래어라도 독자 배려해야

“아바타가 뭐예요?” 70 대 후반 독자가 시민편집인실로 단어의 의미를 문의했다. ‘꼭두각시’와 유사한 단어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답변드리자, “제목으로 쓰일 정도의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알고 싶어 연락했다”고 말했다. 독자는 “기사를 읽어도 모르겠더라. 직접인용이고 쉬운 말이라도 간단히 문맥에서 풀어달라. 정말 나이 많은 독자도 있다”며 노인 독자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7524.html>



[독자의견] 과거 맥락까지 훑아보는 기사 필요

독자 의견 2016/11/18 10:23:00

[독자의견] 과거 맥락까지 훑아보는 기사 필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시민편집인실에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관계를 짚어주는 기사를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부산의 한 50 대 독자는 "최순실의 아버지가 최태민이다. 최순실이 왜 그런 신뢰를 받는지 과거를 반추해 설명하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 교민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라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심층기사를 요망했다.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good@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7526.html>

[시민편집인의 눈] 의혹의 힘과 효용 - 의혹이 진실이 되기까지/ 김예란

활동 기록 2016/11/18 10:24:30

[시민편집인의 눈] 의혹의 힘과 효용 - 의혹이 진실이 되기까지/ 김예란

의혹이 터지면 세상은 둘로 나뉜다. 믿는 편과 부인하는 편. 그러나 어느 편이든 의혹을 키운다. '정신(廷臣·벼슬하는 신하)은 즐기기 위해, 법관은 정보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성직자는 반박하기 위해, 그리고 제 3 신분은 자신들이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가졌노라고 말하기 위해' 소문과 금서를 갈구한다고, 문화사가 로버트 단턴은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중상비방문과 불법문학이 넘쳐나던 파리의 정경을 묘사했다.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 ■ 의혹의 정당성과 유용성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의혹이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혹이 증식하는 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의혹이 비유적인 유용성을 지닐 때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한 대상을 조롱하고 비꼬기 위해 의혹의 형식이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그 내용이 대중의 삶이나 공유하는 가치에 어긋날 때 의혹은 더욱 큰 심정적 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팽배함에도 그 추적과 판정 경로가 막혀 있다면 의혹은 더욱 활기차게 불어날 뿐 아니라 정치적 대항력까지 갖추게 된다. 이렇듯 의혹에는 정서적, 사회적, 정치적 정당성이 내재하므로 언론이 의혹을 다루는 일은 때로는 불가피하거나 심지어 필요하기조차 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말처럼 그저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될, 의혹의 진실성과 효용성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크게는 청와대, 미르재단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실세와 비선 실세들을 거쳐 대학의 학점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무어라 불러야 할지조차 모를 정도로 거대한 최순실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의혹의 의사소통망으로부터 진실을 걸러내고 정치변혁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그리고 의혹의 근거를 타당하게 밝히고

시시비비를 판정하는 추진력의 핵심에 언론이 있다. 그러나 진실을 공표할 책무를 진 언론에 있어서, 의혹은 필요조건으로 유효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즉 의혹이 심층 취재를 촉발하는 자양분으로 기능할 수는 있지만, 역으로 의혹을 품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좋은 언론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언론은 '아마도'를 '명백히'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의혹으로부터 진실을 세우기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의제화하면서 다른 언론들도 취재에 나서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까지 <한겨레>는 큰 기여를 했다(인터넷한겨레 9월 26일치). <한겨레>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끈질기고 촘촘한 취재를 통해 최순실과 여러 조직들의 비밀스런 관계를 포착하고, 안팎으로 얽힌 인맥을 들춰 냈으며 돈과 권력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감지했다. 이렇듯 <한겨레>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동감을 얻어내기에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더욱 중요한 일이 남아 있다. 의혹의 실증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진실 주장을 해야 할 차례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한겨레>가 더욱 분발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호의 어린 제안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한겨레>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 인간관계와 흔적들에 집중한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띈다. '최순실 딸 '그림자 보좌' 노승일'(10월 17일치), '최순실·차은택 이어준 '고영태', '미르·K 재단 수익사업 얼키설키'(10월 22일치), '블루 K·미르·K 스포츠 모두 반경 1.7km 안 '최순실 타운'에'(10월 20일치), '최순실 '비밀의 성'엔 전기밥솥·곰탕 봉지만'(10월 21일치) 등의 기사는

최순실을 숨겨진 중핵으로 해서 증식된 비리의 은밀한 속내를 보여주는 생생한 정보로 유용하다. 하지만 취재 내용이 사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 집중됨으로써 재단, 기업, 대학, 정부기관과 궁극에는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조직적·구조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 축소될 수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적 친밀관계가 공적인 질서를 갉아먹고 비밀스런 조직이 제도와 체제를 오염시키는 비정상성에 있다. 그렇다면 보도의 프레임 역시 '심복'이나 '최순실 사람들'(10월 24일치)과 같이 음험한 구덩이에 함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극복하여 구조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적 차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모호한 정황에 대한 추론이 종종 등장한다. 예컨대 '최순실 또다른 회사 '비텍'에도 K 재단 돈 유입 정황'(10월 19일치)에는 막상 어느 기업의 어느 자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관한 실제 정보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다수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은 대체로 관계자나 이웃 주민들이라고 불리는 익명인들이다. 물론 사건 자체가 워낙 안개에 싸여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정보만이라도 유의미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기사가 되기 위해선 정황에 대한 사건 전달이나 추론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증거와 근거가 탄탄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의적절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고 그에 의해 열람, 수정되었다는 내용이 <제이티비시>에서 보도된 다음날 <한겨레>는 9월에 이루어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증언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10월 26일치). 그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보고서가 매일 최순실에게 제출되었다고 한다. <한겨레> 취재진은 이 비상식적인 내용이 <한겨레>의 지난 두 달가량의 취재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대통령 연설문 유출에 관한 <제이티비시>의 보도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정보원의 증언 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서 보도하는 방식이 신중함의 미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타 언론의 태도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는 대신 사안을 빠르게 판단하고 주도적으로 기사화하는 판단력과 민첩성이 아쉽다. 이를테면 버려진 피시(PC)를 조사해서 실증을 얻어내는 직관과 근력은 비상식이 지배하는 정치 상황에서라면 한층 더 요구되는 우수한 언론의 역량이다.

모든 의혹이 당장, 직접적으로, 정치변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에 정당한 의혹의 정치적 효력은 더욱 심대하고 장구하다. 단탄의 지혜로운 제언처럼, 의혹의 담화들이 흐르고 쌓이면서 '마치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 통치자의 '정통성을 보장해주던 신성함을 한 켠씩 벗겨'내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고투 어린 탐사보도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파고든 비리와 부정의 암반을 꿰뚫는 힘찬 흐름으로 계속되길 바란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7523.html>

[댓글중계] #나와라 최순실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한겨레 르포

활동 기록 2016/11/18 10:26.54

[댓글중계] #나와라 최순실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 #한겨레 르포

<한겨레> 송호진 기자는 지난 17일부터 현재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생한 '최순실 게이트' 독일 현지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최순실씨에게 연설문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송 기자의 '독일 '비밀의 성'에 꼭꼭 숨은 최순실 모녀'(10월 18일치 1면) 르포기사에는 29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st\*\*'는 "독일에서 왕족같이 지냈나보다"라고 했고, '미\*'는 "숨겨야 할 비밀이 얼마나 많기에 저렇게 꼭꼭 숨기고 있는 걸까?"라는 말을 남겼다. '백\*\*'은 "승마? 최고 권력자와 가까운 사람의 딸이 하는 종목이라고 전폭 지원해준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많은 누리꾼이 "#나와라 최순실"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어 21 일 4 면에 보도된 '최순실 '비밀의 성'엔 전기밥솥·곰탕 봉지만' 르포기사에도 1200 여개의 댓글이 달려 국민이 얼마나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지 증명됐다. '이\*\*'는 "허구가 아니라 논픽션"이라고 했고, 해당 댓글에 대한 답으로 'fa\*\*'는 "드라마보다 심하다. 어떤 작가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개탄했다.

<한겨레>가 최순실 소유의 독일 호텔 '비텍 타우누스'에 갔을 때는 이미 최씨 관련자들이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이를 본 '지와\*\*\*'는 "세상 무서울 게 없던 모녀가 야반도주를 했네"라고 남겼고, 'ys\*\*'는 "기자는 잘 찾아내는데 검찰은 뭐 하고 있나?", '성\*'은 "기자는 극한 직업, 생생하게 전해지는 최순실 모녀의 행적들"이라는 말로 르포기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누리꾼 '어느덧\*\*\*'은 송 기자에게 "병원기록 찾아보면 어때요? 범위가 넓어도 한 살 아이 예방접종도 맞혀야 하고"라며 최순실 모녀의 행방을 찾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언니 옆에서 의리 지키니까 내가 이만큼 받잖아'(10 월 26 일치 4 면)는 4000 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단시간에 달렸다. "이게 무슨 국가냐", "최순실씨가 대통령이였다. 개헌으로 덮으려고 했나", "동네 계모임으로 국정운영",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모두 깨졌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good@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7525.html>

제 5 대 한겨레 고충처리인(시민편집인) 소개  
고충처리인 제도 안내 2017/01/11 14:30.01

## 한겨레 시민편집인 현황

한겨레신문사는 제 5 대 시민편집인으로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를 2016 년 3 월 1 일부로 선임하였습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 제도는 2006 년에 도입했습니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을 시작으로 김형태 변호사,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고영재 전 경향신문사 대표이사가 시민편집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김예란 시민편집인 소개



김 시민편집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뒤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칼리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림대 교수를 거쳐 현재 광운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 교수는 2016 년 3 월부터 <한겨레> 지면에 게재하는 칼럼 등을 통해 시민과 독자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합니다. 김 교수는 “독자와 신문사 간 소통의 폭과 깊이를 이전의 정치 지면 중심에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경제, 국제 지면 등으로 확장,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겨레 온라인 사이트에 실리는 댓글과 트위터 등에 담기는 독자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면 시민편집인실 전자우편(publiceditor@hani.co.kr)이나 전화(02-710-0698)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편집인의 눈] 트럼프 타워와 청와대,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정치/ 김예란  
활동 기록 2017/01/11 14:41.08



그림)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행여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 우주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수십억 평범한 지구인 중의 한 명인 나였기에, 막상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니 무엇이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이끌었는지 더욱 궁금해진다. 무릇 세상일에는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고 깊은 이유와 맥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 ■ 트럼프주의의 대중적 연원

왜, 어떻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까? 트럼프의 유세 연설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정치적으로 타락한 엘리트 계급 대신 우리가 통치하는 미국." 미국인들은 성차별, 인종주의, 탐욕 등 갖가지 도덕적인 결함을 지녔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타락한 엘리트 계급에서 벗어나 있는 개인을 선택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다음날 저명한 정치평론가 나오미 클라인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트럼프 승리의 핵심 요인은 신자유주의,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엘리트 신자유주의'의 해약에 있다. 클라인의 표현을 따르면, 트럼프는 '모든 게 지옥이다'라고 화낸다. 반면 클린턴은 '모든 게 잘되고 있다'며 확신에 넘친다. 현실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듯이, 모든 게 지옥처럼 엉망이다. 고로 사람들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의 중핵적인 수혜자인 클린턴의 위선 대신 현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적나라하게 대변해주는 트럼프를 선호한다.

물론 트럼프가 그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백인-노동자 계급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돌려 주고 그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되살려 주리라는 맹신, 인종적 폐쇄성을 주장하면서 그간의 세계화의 흐름이 미국사회에 가져다 준 부와 이점을 부인하는 이중성, 백인 노동자뿐 아니라 더 많은 약자들이 받게 될 차별과 고통에 대한 묵인 등, 많은 지점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착오를 범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승리를 오로지 배운 것 없고 가난하며 오기에 찬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복수로 치부하는 해석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트럼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단순한 변덕이나 착각이기보다는 현 자본주의 체제에 모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 ■ 문제는 민주주의다

<한겨레>는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트럼프 당선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여러 관점에서 전하고 분석했다. '미국까지 뿔친 반세계화 해일 ... 국제질서 대격변 예고'(11 월 10 일치)에서는 트럼프 승리를 '반세계화 우파 포퓰리즘이 해일이 되어 미국까지 뿔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적 경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었지만, 그 대응으로 오히려 "극히 퇴행적인 우파 포퓰리즘의 기승"이 야기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는 단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등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 우경화 양상의 일환으로 해석되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기성 엘리트, 주요 동맹국 등의 갈등과 이해관계 국면에 따라 야기될 지정학적 위기가 예측되었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그러나 이렇게 원인과 향후 전망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기사들과 더불어, 국내 선거 기사에서도 빈번히 지적되는 현상이기도 하듯이, 미 대통령 선거를 후보자 간 경쟁이나 지역·인종·성 등의 범주에 따른 정체성 집단 간의 과열된 갈등 현상으로 틀 짓는 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민주당파와 공화당파 사이의 선거 전략의 비교로 단순화되거나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 분극으로 묘사되는 식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추론하는 기사들도 아쉬움을 낳는다. 국제뉴스가 해당 지역의 국지적인 특수성에 따라 재해석되는 현상은 당연할 뿐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 권력 체제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현 체제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시민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즉 '정치'를 고민하는 본질적 사유는 희박하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나라들에서 우경화가 심화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대두하는 문제, 요컨대 '타락한 엘리트 계급을 여전한 민주주의의 망령으로 떠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비난하며 성가신 약자들을 해치워주는 악인을 영웅화할 것인가'라는, 현재 각국의 시민 주체들이 보편적으로 봉착한 현실적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누락되어 있다. 대신 경제와 국방의 정책 및 외교에 관한 단기적인 추측과 협소한 전망이 주를 이룬다.

누가 트럼프와 클린턴을 찍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통계를 세심히 보더라도 심층적인 접근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백인 남성 63%, 백인 여성 53%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나 유권자 집단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층위들이 발견된다. 세대 기준으로 45 세 미만 유권자의 40%가 트럼프를 지지한 데 비해 45 세 이상 유권자의 53%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흑인 남성 80%, 흑인 여성 94%가 클린턴을 지지했지만, 히스패닉계 남녀 모두 60% 이상이

클린턴을 선호했다. 더욱이 여기에는 교육 정도와 지역성과 같은 매개 요인들도 개입된다. 이제 단지 백인-남성-하위층의 둔탁한 틀만으로는 트럼프의 승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정치이념 지형과 함께 세대, 지역, 젠더 등의 범주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중첩 국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이번 선거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린 상상이 가능해진다.

## ■ 다른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

트럼프의 승리는 단순히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백인 남성의 어리석은 분노 표출이 아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에 실린 정치 평론가 조너선 프리들런드의 해석처럼, 미국인들, 어쩌면 지구화 체제의 다중들은 지금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으로 좌절, 분노,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는 단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정치인(그리고 온갖 사이비 정치인)-재벌이 결탁한 타락한 권력 체제에서 양산된 부정부패의 극단을 체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당선과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 사이에는 비극적인 공통성과 함께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지배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미국에서는 부적합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한 대통령을 단죄하는 흐름으로 개진되고 있다. 희망이 있다면, 이 갈림길에서 싹튼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713.html>

[댓글중계] 대동'하야'지도 그린 100 만 촛불민심

활동 기록 2017/01/11 14:43.26

[댓글중계] 대동'하야'지도 그린 100 만 촛불민심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박근혜 특검'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불'의 성질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박근혜 퇴진'을 염원하는 촛불들은 오히려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지난 19 일에는 부산 10 만명, 대구 2 만명, 광주 7 만명 등 6 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촛불을 들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는 햇불까지 등장해 장관을 이뤘다. 촛불집회와 관련한 누리집 기사 아래에는 여느 때보다 뜨거운 댓글들이 달렸다.

'대동하야지도...오늘 우리 동네서도 '촛불'(11 월 19 일치 3 면) 기사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을 지도와 함께 크게 실었고, 이어 댓글 350 개가 달렸다. 누리꾼 'used\*\*'는 "그래 집 앞에서 하자!"라고 했고, 'lgeu\*\*'는 "경남인데 가족들 다 나갑니다"라며 지역 집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

누리꾼 'sien\*\*'는 "부산·마산이 들고일어나면 정권이 바뀐다. 그 서슬 퍼런 긴급조치가 난무하던 유신시절도 그랬다"며 지역 촛불민심의 역동성을 1979년 부마항쟁에 빗댔다. 또 'popo\*\*'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 공적은 국민 대통합"이라는 풍자적인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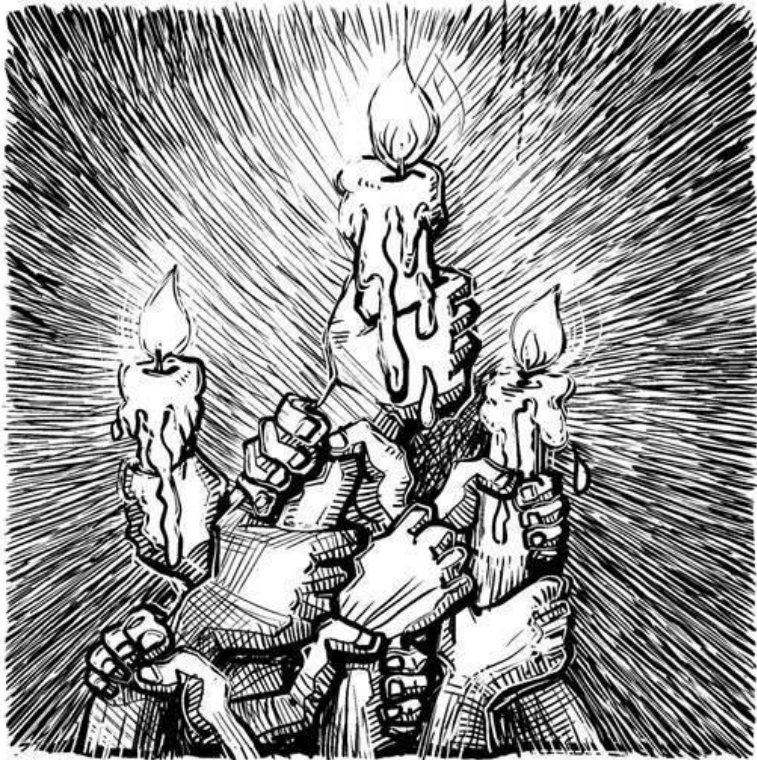
하지만 대통령은 100만 촛불을 외면하며 '엘시티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반격...나 말고 "엘시티 수사"'(11월 17일치 1면)를 본 누리꾼 'kgy3\*\*'는 "엘시티도 수사하되, 대통령 수사와 처벌이 먼저다"라고 했고 이어 많은 누리꾼이 "불법을 수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현 대통령이 말할 입장은 아니다", "물타기", "엘시티 비리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촛불은 타오른다" 등의 댓글로 대통령을 비판했다.

지난 19일 4?5면에는 '5대 키워드 박대통령 행적으로 본 게이트 재구성'(온라인 제목은 '박근혜 게이트 5대 키워드')라는 직관적인 제목으로 이목을 끌었다. 누리꾼 'skdl\*\*'는 "박근혜 게이트! 제목 최고"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 정확한 기사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게 핵심"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누리꾼 'sun\*\*'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쫓은 <한겨레> 여섯 기자의 일목요연한 분석이 돋보였다는 평도 함께 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good@hani.co.kr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712.html>

[시민편집인의 눈] 촛불광장과 수(數)의 정치/ 김예란  
활동 기록 2017/01/11 14:45:56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우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습관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인류가 만들어낸 최선의 정치 형태라 일컬어지는 민주주의는 익명화된 인구들이 지닌 의견을 수치화하여 산출된 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계량화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 논리는 다수가 수렴될수록 진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인류 보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평소에는 정치로부터 소외된 보통 사람들이 작은 의견을 보탬으로써 큰 물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패배한 표의 유실을 묵과한다. 아울러 양적인 범주에서의 많고 적음의 논리는 질적인 차이들을 분별하는 데에 둔감하기 쉽다. 가령 '가' 정당을 선택한 표가 정말 그 당을 지지한 건지 다른 당이 더욱 싫어서 부득이하게 취한 차악은 아닐지, 또는 정당의 어떤 면모를 선호하거나 반대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해석은 무마되기 마련이다.

#### ■ 촛불집회에서 수의 의미

전국에서 232 만여명이 모였던 촛불광장으로 들어가보자. 대부분의 언론은 광장에 참여한 시민의 수를 강조하며 촛불집회의 위력을 보도했다. 거대한 수의 군중은 즉각적으로 흥분, 감동, 숭고함을 불러일으킨다. 제도정치에서 배제되어온 다수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대규모의 집합성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명해야 할 절대성을 표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분노와 열정으로 가동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그것이 지닌 심대한 의미는 침착하게 사유되어야 한다. 자기 반성력 없는 운동은 생명력이 길 수 없다. 따라서 현재

탄핵정국을 이끌어가는 촛불집회 현상에 대한 성찰 역시 운동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지금처럼 국가적인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기까지에는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크고 작은 정보들을 치밀하게 추적하고 고발한 <한겨레>의 기여가 크다. 그리고 지금의 탄핵정국에서도 <한겨레>는 여타 언론들보다 더욱 활발하고 개방된 태도로 촛불광장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접하고 전하고 있다. 또한 탄핵정국을 전망하는 정치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여 전달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응 방책에 대한 사회적 사유를 촉구한다.

그럼에도 촛불광장의 안과 밖을 연결하고 촛불집회의 현재를 미래로 확장해 나가는 거시적인 접근은 아직까지 미약한 듯하다. 주요하게 관찰되는 문제점을 이렇게 추려볼 수 있겠다. 우선 거대한 수치로 표현되는 시민의 존재성이다. 흔히 유력자의 발언은 그 하나가 개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일반 대중의 의견은 익명의 양으로 뭉쳐진 목소리의 크기로 평가된다. 오로지 촛불광장에서 시민의 수가 얼마나 불어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 정치체제에 내재하는, 발화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관한 차등화된 위계질서가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의 양에 흥분하는 대신 그 다수성을 구성하는 섬세한 결들을 정치적 질로 고양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타당성이 강조되다 보니 때로는 양분화된 대립논리가 돌출한다. 대표적으로 박사모와 촛불시민, 또는 정치인과 대중 사이의 대립 프레임을 들 수 있다. 나는 광장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복잡다단한 상호관계가 형성되며 다수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서로 만나면서 자율적으로 조정되기에 광장에의 참여가 건강하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언론에서 이들을 단순화된 이분논리로 틀짓는 순간 갈등이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논쟁과 조정의 가능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어 시민의 직접행동과 공인된 담론 사이의 분리 현상을 들 수 있다. 광장 현장에 대한 취재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시민으로 채워졌고 이때에는 시민이 정치인들을 배척하는 탈권위주의가 강조된다. 반면 탄핵정국에 대한 전문화된 논의는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 간부 등을 포함한 기성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엘리트와 보통사람' 식의 차별화된 상징질서를 따르는 전형적인 관행이다. 말하자면 거리에는 다수 대중이, 그러나 정책 결정 회의장에는 소수 엘리트가 당연한 듯 배치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광장이 발휘하는 정치력은 거대하고 정당하다. 그러나 촛불광장 담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나 된 국민'이라는 신념은 자칫 위험하다. 역설적이게도 '국민'은 유신체제가 만들어낸, 획일화된 통치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다. 따라서 이른바 국민 통합성에 대한 과신에서 벗어나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의 자율성과 특이성의 의미가 복원될 때 한국 사회에 뼈곡하게 체질화된 유신체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체가 가능하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촛불 이후의 정치적 지성을 위해

분명한 사실은 광장에 선 사람들이 하나라는 믿음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당장의 급선무인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단일 목표로 삼아 하나의 연대로 뭉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광장에서도 발언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노동, 재벌, 교육, 언론, 나아가 생명과 죽음의 체제 자체-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장차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질서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라는 신념 안에 실재하는 차이와 변화들에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탄핵정국이라는 예외 상황 이후에도 촛불 운동정신이 꺼지지 않고 정치의 근본으로 존재하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응용될 수 있다.

정치철학자 주디스 버틀러는 '광장에 몸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는 이미 전개된다고 말한다. 또한 스테판 에셀은 분노할 수 있는 힘이 참여의 의지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단지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작금의 보통선거 방식을 넘어서 시민과 통치자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정치적 창의성을 요청한다.

이제 우리는 분노할 줄 알고 참여하고자 한 몸들이 광장에 모인 촛불 이후를 내다보아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어떻게 들끓는 분노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참여민주주의로 만들고 행할지, 신생의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어떤 참신한 방식으로 정치 제도화·공고화할지를 발랄하게 탐구하고 진중하게 실천해야 할 순서다. 이 귀중한 행동들을 정치적 지성이라 부를 수 있다면, 정치적 지성을 구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은 당연히 언론에도 부여된다.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6547.html>

[댓글중계] '단독 홍수' 속, 눈에 띄는 한겨레 기사

사건 초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올 때 시민편집인실은 순식간에 천 단위, 혹은 만 단위까지 넘겨버리는 댓글 수에 놀라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상이 돼 오히려 찬찬히 댓글들을 살피는 여유도 생겼다. 언론사마다 '단독'을 쏟아내는 '단독 홍수'의 시대에 주목받은 <한겨레> 기사를 훑아보자.

'김기춘, 현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12 월 3 일치 1 면) 기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개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실렸다. 글에는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에 대한 정부의 압수수색, 응징성 고발 대응이 적혀 있었다. 누리꾼은 이를 정부의 언론 통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jas3\*\*은 "박근혜와 김기춘이 언론을 통제·장악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했고, hwa\*\*은 "정부 관심은 언론 길들이기와 문화 통제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분노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맞닿아 있어 파장이 컸다. vnt\*\*는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었네. 그 옛날 대통령 욕하면 잡아간다던 말이 돌던 때가 있었지. 이게 나라냐?", dlwl\*\*은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더불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댓글도 줄을 이었다.

지난 7 일 1 면과 4 면에 걸쳐 다뤄진 '박 대통령 "315 명 배에 갇혀있다" 보고 받고도 미용사 불러', '박 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 분 날렸다' 기사에는 양대 포털사이트 합계 약 5 만 7 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파란\*은 "아버지 박정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는 걸 지켜봤을 사람이라 가능한 오싷한 여유"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댓글 공감을 제일 많이 받은 최양\*\*은 "한겨레 말대로 대통령이 머리 올린 시간보다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여전히 숨기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경호실에서 외부인 출입 없었다고 한 것도 거짓말로 밝혀졌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는 댓글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포착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good@hani.co.kr

[독자의견] 진보 언론 모인 진보 종편 꿈꿔

독자 의견 2017/01/11 14:59.03

[독자의견] 진보 언론 모인 진보 종편 꿈꿔

“한겨레는 티브이(TV) 채널이 없나요?” 60 대 독자의 목소리에는 궁금증이 가득했다. 운송업에 종사한다는 독자는 들르는 식당마다 종편만 보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독자는 “현재 종편 채널은 보수 진영의 의견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방송의 영향이 큰 만큼 진보를 대변하는 종편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겨레티브이, 뉴스타파, 오마이티브이, 팩트티브이 같은 진보 언론들이 힘을 모아 만들 수는 없느냐”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712.html>

[독자의견] '국정농단'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문제

독자 의견 2017/01/11 15:04.05

[독자의견] '국정농단'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문제

시민편집인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독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50 대 독자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한국 경제도 문제가 많다. 늘어가는 가계부채나 재벌 법인세에 관련한 기사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 대 독자는 메일로 “경제 위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관련 기사를 확충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남겼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1712.html>

[독자의견] 수고했다 <한겨레>, 고마워라 <아하!>

독자 의견 2017/01/11 15:06.39

[독자의견] 수고했다 <한겨레>, 고마워라 <아하!>

한겨레 주주라고 스스로 소개한 한 독자가 “제이티비시만 주목받아 한겨레 섭섭하지 않아요?”라고 물었다. 독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한겨레가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지속적인 보도를 한 것을 칭찬했다. 더불어 직업상 매주 한겨레 신문활용교육(NIE) 지면인



<아하!>를 아이들과 보고 있다며 신문이 교육 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독자는 “고생 많았다.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한겨레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6548.html>

[독자의견] 한겨레 누리집 날짜별로 읽기 너무 불편해

독자 의견 2017/01/11 15:07:34

[독자의견] 한겨레 누리집 날짜별로 읽기 너무 불편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언론사의 누리집과 모바일은 지면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 독자의 목소리는 한겨레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독자는 한겨레 누리집은 당일 기사는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지나간 기사는 날짜별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독자는 “날짜를 포함한 검색어를 넣은 후에도 찬찬히 목록을 읽은 뒤에야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시민편집인실 허정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6548.html>